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월 14일 (제1236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계도를 수정하라

나는 요즘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잘못 그린 그림을 수정하니 멋진 그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계도를 수정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했다.

2024년, 실패를 이겨내려면 계도를 수정하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다. 나오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룻 1:6),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룻 1:7), 이처럼 계도를 수정한다. 그랬더니 며느리 룯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 팔자가 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까지 누리게 된다. 베드로는 어부다. 물질하는 데는 베테랑이다. 그런 그도 허탕을 칠 때가 있었다.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온다. 실패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계도수정을 명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계도수정을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지라 인근의 다른 배를 불러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도수정을 잘하는 걸까? 베드로의 말에 그 답이 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 그렇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도를 수정해야 한다. 나오미처럼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계산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왜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하셨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열심히 해도 진전이 없는가? 그렇다면 계도수정을 해보자. 경부선을 타면 아무리 질주해도 절대 기도원이 있는 전라도 장성에는 도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호남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계도수정, 빠를수록 좋다.

## 남의 것 부러워 말고 내 것을 찾아라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목회 40년에 들어섭니다. 누차 말하지만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여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 아십니까? 그저 남이 좋다고, 명품이라고 혹해 봐야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고 일등 신랑감이 아니라 나와 맞아야, 신앙이 맞고, 인생관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야 평생 해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직장, 나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요설로 친족을 쫓아 형제 칠십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 살육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말쑥 요담이 비유를 들어 친족 세겜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감람나무는 자신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충실한 것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목사가 나에게 너무도 잘 맞습니다. 오죽하면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 그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어리석게도 자기 삶을 불행하고 고달픈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 부부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거라고 백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생각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러니 우리 주님

## 인생이 고달픈 것은 내 것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 남의 것 부러워 말고 내 것을 찾아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기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 것을 찾지 못하니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말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약 1:14-16).

왜 인생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내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신발도 나에게 맞는 것을 신어야 발도 편하고 먼 길을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명품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발에 맞아야, 내 발에 편해야 최고의 신발인

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요동하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자신의 실과를 버리고 요동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술을 버리고 요동할 수 없다고 역시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삼겠거든 모두 자기 그늘에 피해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로 살라버리겠다고 겁박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친족들의 그릇된 판단을 나무라고 경고하는 비유인데, 감람이 되지 않는 자, 즉 왕 자리에 맞지 않는 자를 세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 경고합니다(삿 9:8-15).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찾으라 하신 것은 찾으면 찾는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구하라 하신 것은 구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다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찾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당장 오늘부터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당신에게 맞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7)



##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연고요(마3:16), 둘째는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다. 키우고, 가르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커.’ 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결혼도, 출산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만물이 다 그분 것이요, 또한 여호와 이름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소생케 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못하더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심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할렐루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당시 20세였습니다. 통치 철학을 알 나이가 아니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뺨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니 수효가 많아 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7-9). 솔로몬은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구하는 것이 합당한지라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사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여리고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는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바짝 매달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막10:51)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에게 보는 것보다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수님은 바디매오의 말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솔로몬이나 바디매오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현존하는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야 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하면 “은혜요.”, “성령충만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예 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네게 뭘 하여주길 원하냐?’ 하고 물으시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우크라이나에 처음 갔을 때 먹을 것이 변변찮았습니다. 빵 하나 사려면 줄을 길게 서야 했으니 돈을 가지고도 굶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잘 먹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전통 빵을 구워

내오고 풍성한 만찬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관 기관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손대는 자마다 병에서 낫게 하소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마6:7)는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기도, 실질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는 “여호와여, 고기 주세요.”라고 했고, 아들이 없어 끝탕하던 한나는 “아들 주세요.”라고 했고,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병 낫기를 구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 괜히 품잡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 집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딸이 유학 중인 의사분이 있는데, 가끔 전화해서는 “아빠, 돈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를 푼 겁니다. 아주 자식 유세가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도 자식 유세 해도 됩니다. “이거 주세요.” 당당히 구해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서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그 일로 금식하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안색이 초췌한 것을 보고는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해 아뢰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조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러

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느2:5)라고 말합니다. 너무 절실했기에, 너무 간절했기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푹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무엇을 먹을래?’ 물었을 때 ‘아무거나요’ 하는 놈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다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도 묻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열도를 재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의 열도가 높으면 언제 물어도, 어느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이 푹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급하지 않다는 거지요. 안 주셔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습니까? 앞뒤 사설 빼고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벌어야 가족이 삽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병들었습니까? 바디매오처럼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미사여구 쓰지 말고 직고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실 것입니다(마7:11).

###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음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며 하나님을 내 지식이나 상식이란 잣대로 재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무엇이든지’ 주실 마음이 있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간절히 찾을 때, 기필코 열고 맡겠다 하고 두드릴 때 움직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울 성전 건축해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시기에 멋진 서울교회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행동합시다!



다른 어려운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전 활동은 관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도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활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지침을 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께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는 새롭게 된 성품의 일부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며, 설령 우리 발밑에서 땅을 잃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

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무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신7:9). 모든 사람은 직장, 교회, 가족, 하나님,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의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의무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역할이 감소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전 의무와 새로운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무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분은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교육하시고, 법을 주시고, 국가의 경계를 바꾸시며, 왕을 임명하시고, 선지자를 불러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 있는 노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큰 꿈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 내에서 최소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TV에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나 책임 있는 노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즉 실제적인 행동을 통한 사랑, 약속에 대한 충실함, 수동성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 티쿤올람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자



유대인들은 전 세계 78억 인구의 0.2%에 불과하며, 그 숫자는 1,500만 정도이

다. 노벨상이 처음 수여된 이후 2022년까지 23%의 수상자가 유대인이다. 인구 대비로 하면 인도나 중국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유대인이 인도나 중국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들의 놀라운 수상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유대인의 창의성의 원동력은 티쿤올람(Tikkun Olam) 정신에 있다. 히브리어로 ‘티쿤’은 고치다, 새롭게 한다, 바꾼다, 다스린다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바꾸고 다스린다,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정신이다. 유대인 아이들이 13세 성인식 때 랍비의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티쿤올람’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가? 당연한 대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이다’(요1:12). 또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것이다(창1:26).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유대인들이 티쿤올람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초석 목사님은 동일한, 아니 더 큰 꿈과 비전을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작품이다.” 인생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작가인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니 항상 하나님의 생각(렘6:19)과 말(민14:28)을 하자. 그러면 멋진 인생작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살자. 2024년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딤후4:5)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경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 물 없는 광야와 눈 덮인 산야를 지나서



한국에 계시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물 없는 광야를 지나고 눈 덮인 산야를 넘어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찬양과 건강과 믿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해 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이해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해주시고, ‘떠났으면 더 좋은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는 송구영신에 배 때 말씀이 믿음과 비전으로 다시 정리

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감사와 기쁨과 건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설렐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시고 설교로, 또 말씀으로 보내주실 때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으로 변해서 제 마음에 들어움을 여러 번 느낍니다. 말씀이 목사님으로 변해서 내 곁에 계시는 그런 느낌과 위로로 느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항상 목사님 곁에서 신앙생활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니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저도 멀리 있지만 항상 목사님의 보살핌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자유를 누리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부유와 보살핌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우루과이에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

#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느 날 첫째 손자가 학습지의 수학 숙제를 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몸을 비비 꼬며 집중도 못하고 여간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채점표를 보니 소나기가 와있었다.

몇 개월 지나 그날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을 보니 이번엔 무척 밝아서 “우리 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칭찬해주었더니, “할아버지,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방에서 빈 종이를 들고 왔다. 그러고는 문제를 더 내달라고 한다. 10문제를 내주니 단번에 다 풀어버리고는 아주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지난번 그 아이와 동일한 아이가 맞나 놀라웠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수학 ‘실력’이었다.

실력은 같은 대상을 향해 다른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태도를 갖게 한다. 내가 보

기엔 그냥 그림인 것 같은데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림의 구석구석을 보며 탄복한다. 영화도 그냥 보는 이보다 영화의 배경지식과 클리셰, 오마주 등을 이해하는 이의 즐거움이 몇 곱절은 된다. 축구는 응원만 해도 재미가 있지만 뛰어난 축구 실력이 있어 직접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사람의 흥분과 즐거움에는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이 즐겁고 축구가 즐겁고 머리 아픈 수학마저 즐거울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것들을 온전히 누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자녀의 권세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선 자녀의 권세의 전제 조건인 ‘영접의 실력’,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내 삶에 온전히 영접해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주님만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접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먼저 영접의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이자 첫 단추이다. 잔치에 초대하는 이가 있어야 참석자가 존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사랑스럽지 못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 다. 우릴 귀히 여기사 우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힘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잔치까지 준비해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더군다나 이 땅에서도 승리의 날들까지 예비해주셨다. 주님의 준비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순종에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선 이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기록을 세웠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7명만이 기록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골의 주인공, 손흥민을 키운 아버지 손웅정 씨가 평생을 강조한 것이 첫째도 기본, 둘째도 기본, 셋째도 기본이었다고 한다. 손흥민의 초등학교 시절 시험 출전은 생각도 못 하게 하고 오직 날마다 왼발 오른발 각각 볼 트래핑을 500개씩 시키며 완벽한 기본기에 열을 올리신 것은 결국 고급기술이나 감각 모두 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운으로 한두 번은 가늠해도 지속적인 나의 실력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4:8).

사람은 조석변이라, 하루에도 몇 번을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요동한다. 경건 훈련의 목적은 세상 다 변해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 눈물을 쏟으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선 식어버린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기가 쉽다. 기본기가 없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과 같다.

매일 믿음의 군불을 때야 한다. 깊은 영적 기본기가 탄탄해지면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져 선택도 달라진다. 결국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다른 길을 걸으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 올 한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자. 그 길을 걷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나 요령은 없다.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사자굴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해야 한다.

새해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만한 믿음의 실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교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부산예수중심교회 이구원 목사

##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성경 일독합시다)



2024년 새해 첫날, 운전하는 중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핸드폰 거치대에 있는 핸드폰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 삼아 벌점 및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호주는 벌금이 셀

니다. 호주 달러 380불, 한화로 약 30만원이 나왔습니다. 휴일이라 평일 벌금 2배의 벌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호주에 13년 살았는데도 그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경험이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송구영신예배를 통하여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우리 교단의 새해 표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

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된 권세로써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 일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가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를 가깝게 해줍니다. 세상 사느라 잊고 지내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일독’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3페이지 정도 읽으면 1년에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점에서,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한해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7:24).

우리 모두 도전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할렐루야!

시드니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

예수중심제자신학원 2024년 신학생 모집

모집기간: 2024년 2월 18일까지  
문의 : 02. 533. 9191